



용기,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한 우리의 여정

신선여고 1-6 오민채

용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불가피하게 마주해야 하는 도전의 순간에 꼭 필요한 마음속 불꽃이다. 평소엔 존재를 잊을 정도로 고요히 마음속에 있다가도, 우리가 도전해야 할 과제와 직면할 때 순간적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불꽃이 ‘용기’인 것이다. 갓난아기 시절 첫걸음마를 시도하기 위해 벽이라도 짚고 다리에 힘을 주는 그 순간에도 무의식중에 용기가 뒤따른다. 처음으로 친구에게 말을 건네는 초등학교 시절이나 처음 본 음식을 시도할 때와 같이 어쩌면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순간들도 결국 모두 용기에서 비롯된 우리의 소중한 추억들이었다.

사춘기를 겪으며 그 당시의 또래들과 같이 하루가 다르게 비관이 요동치던 시절의 내가 있었다. 그때의 나는 책만 펴면 잠이 왔고 모든 것에 권태로움을 느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나의 어떤 점이 그들보다 열등한지를 찾기에 급급했고, 그 때문에 나는 날마다 속상해져 말수가 적어졌다. 누구도 내게 상처를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만 스스로 때문에 괴로워졌고 마음속에 응어리가 졌다. 그때의 괴로움은 자꾸만 부모님과 나를 갈

라놓았다. 아버지와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날들이 많아졌고 어머니가 날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난히 힘들었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든 어느 날, 많은 것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어릴 때 이후론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던 악몽을 꺾버린 것이다. 너무나도 생생했던 악몽 탓에 혼자 잘 수가 없었던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부모님의 방문을 두드리는 것에 나는 용기를 내기가 힘들었다. 부모님께 이미 너무나도 많은 짜증을 냈기에 스스로가 염치없게 느껴져 끝내 방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그 순간이 참 서글펐다. 어릴 적엔 가볍게 두드리고 열 수 있었던 그 문을 지금의 나는 끝내 두드릴 수도, 열 수도 없다. 그 이후 방에 돌아와 누운 나는 머릿속을 채우는 수많은 생각들 탓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나이쯤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올렸다. 분명 해맑고 참 예뻐했을 것이다. 아버지의 발에 굳은살이 많지 않았을 것이고, 어머니의 손에 습진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20대의 그들은 더욱 찬란했겠지. 유한한 청춘을 보내던 그들은 어느 날 찾아온 나를 기꺼이 사랑해 주었고 처음 겪어 보는 ‘부모’라는 자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두 다리로 일어설 용기를 못 내던 날 위해 두 손을 꼭 잡아 주었던 서른한 살의 어머니와 달리다 넘어져도 씩씩하게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르쳐 주던 서른다섯 살의 아버지, 나보다 더욱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나를 초등학교에 보냈던 서른여덟 살의 그들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사실 그들은 여태 날 위해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있었고 동시에 날 위해 매일 용기 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후,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이제 변해야

했다. 내게 무한한 용기를 준 부모님께 반드시 용기 내어 죄송함과 감사함을 표현해야 했다. 도저히 얼굴을 마주 보고 말할 수 없었기에, 편지를 썼다. 내 진심과 감사, 그리고 사랑을 종이에 꺾꺾 눌러 적으며 많은 걸 배웠다. 편지를 다 쓰고 부모님 방에 둔 후 방문을 닫은 순간, 내 안의 검푸른 응어리에 균열이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편지를 읽은 부모님이 날 말없이 안아주신 순간 마침내 그 응어리가 붕괴되는 걸 느꼈다. 그때 용기의 중요성을 처음 느꼈다. 그때의 용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매일 괴로워지는 내가 아닌 작은 것에도 행복할 수 있는, 푸른 바다나 은은한 구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쉽게 행복해지는 나는 용기의 결과인 것이다. 그때 용기를 내는 과정은 생각보다 매우 힘들었지만, 결과는 분명 값지다. 한순간의 용기로 진정한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다. 마음속 용기는 나의 의지에 따라 무한할 수 있지만 애석하게도 시간은 유한하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흘러 과거를 회상할 때 용기를 낸 순간보다 용기를 내지 못한 순간을 훨씬 많이 후회한다. 그 누구도 용기 낸 자를 비웃지 않는다. 한 번의 용기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가 쌓여 우리의 삶을 더욱 다채롭고 빛나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삶을 용기를 통해 더욱 빛나는 꽃으로 피워야 하지 않겠는가. 도전을 두려워하는,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그대의 용기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지도가 될 것이고, 도전이 실패하더라도

도 그 잔해는 멀리까지 훤히 밝혀주는 수많은 조각의 빛이 되어 어둠을 이겨낼 또 다른 용기를 줄 테니, 부디 용기와 도전을 멈추지 말라고. 멈추지 말고 쭉 나아가 다른 이에게도 용기를 북돋아 주는 밝은 별이 되라고. 내 당부가 모두에게 닿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용기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빛나게 될 날이 오기를 난 소원한다.

